

'3고 위기' 심각성 전달...지역주택조합 문제 지속 보도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광주일보 제9기 13차 독자위 회의

9월 28일 광주일보 9층 편집국 회의실

광주일보 제9기 13차 독자위원회가 지난 28일 광주일보 9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장필수 사회당당 편집국장 겸 김윤하 독자위원장,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신일섭 광주전남 녹색연합 상임대표,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 등 독자위원 4명이 참석했다.



광주일보 독자위원들이 지난 28일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김윤하(가운데) 위원장 주재로 독자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



無지출 헬린이 MZ세대 눈길
젊은이들 '슬픈 자화상' 보여줘

◇김윤하=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위기' 속에서 광주주요는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경제 위기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7월부터 지난 세달 간 3고에 따른 경제 동향 기사는 1면 머릿기사로 10건이나 게재했으며 경제면을 포함하면 지역민에게 경제위기 심각성을 전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민생은 3고 투쟁...3당은 당권투쟁' <7월 12일자 1면> 기사는 현재 국내 상황을 총체적으로 짚어주는 기사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위기 극복 노력보다 당 내부 혼란에 빠져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을 담아 물보였다.

'고물가에 無지출 헬린이 나선 MZ세대들' <7월 27일자 7면> 기사도 눈에 띄었다. 하루 두끼 7000원, 치킨과 영화표는 중고나라를 이용하는 임용고시 준비생의 예를 들어 마용실도 가지 않고 몇 달간 옷도 사지 않고 스마트폰 요금제도 무제한에서 3만 원 이하로 바꾸는 젊은 세대의 슬픈 유행을 내비쳤다.

소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다룬 기사도 눈에 띄었다.

'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광주 곳곳 시끄럽다' <8월 29일자 6면> 기사를 통해 금동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토지확보율 19%를 80%로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주요는 조합원에 받은 계약금 유용 의혹, 금동 지주택 조합 집행부 수사 속 광주시와 구청의 사업 감독 부실 등을 지적했다. 송정리버파크 지주택사업에 잡음이 일어 이설 계약을 놓고 교회와 조합원이 마찰을 빚고 있는 사실을 통해 수면 위로 올렸다. 광주에서만 80여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허위 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많아 불리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이에 부동산, 전세, 아파트 분양 등 일반 소시민에게 밀접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줄길 바란다.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보도 부족
군공항 이전부지 활용방안 다뤘으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광주의 아픈 역사를 콘텐츠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인상깊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5·18 암매장 유골을 찾았다' <9월 26일자 1면> 기사가 재차 확인시켜주듯 광주의 아픈 역사는 좀처럼 아물기 힘들다. 이러한 외경에 광주주요의 기획 시리즈는 참 반가운 기사였다. '인권도시 광주, 다크투어리즘에 미래가 있다', '국내외 성공사례에서 해답 찾는다', '광주 다크투어리즘 성공하려면' <9월 20, 21, 22일자 6면> 기사를 통해 광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인권도시' 광주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에도 마음을 흔드는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해 관공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보도가 필요하다.

광주주요를 읽는 재미 중 하나는 시대적 흐름과 트렌드, 변화를 알 수 있는 세대를 기민하게 포착해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바꾼 여가문화...마이크 놓고 아령을 들다' <8월 8일자 9면> 기사를 통해 거리두기 해제에도 모임보다는 자기 관리에 관심이 많아지는 최근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었다. '스타벅스마저 손들었다...우울한 광주 총장도 상권' <9월 16일자 6면>에서는 쇠락해가는 총장도 상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기사로서 총장로의 현실을 심각하게 진단했다.

사진이 주는 울림도 분명하다. '조룩임 무성한 갯벌 갈매나무' <7월 22일자 1면> 사진에는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바라본 무안 망운면 탄도리 갯벌 풍경이 담겨있다. 일견 자연이 그린 수목화 같아 감탄이 절로 나오지만 자세히 보면 심각한 가뭄을 담은 사진이다. '그림은 말 없는 시이고 시는 소리 있는 그림'이라는 표현처럼 이 사진은 글 없는 기사요 이미지 속 한편의 시다.

진으로 담았다. 사진 한장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표현한 사례다.

8월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 선출 선거에 대한 보도는 양적으로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전남 지역들의 주된 관심사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만큼 관심도 높았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지도부 선거 관련 보도는 지지를 충족시킬 만큼의 기사가 쏟아지지 않아 아쉬웠고 이에 따라 민주당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지 못했다.

또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10월 공식 발표' <9월 22일자 1면> 기사에 따라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관련해서도 광주주요가 앞장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군공항 관련 전문가를 섭외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기획과 특집 등을 통해 활용 방안과 현실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으면 한다.

지방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 학생이 떠나면 경제도 함께 떠난다. 지방의 살길은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대학 정원미달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반복적으로 지자체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신일섭 광주전남 녹색연합 상임대표



'구도심 사라지면 광주 없다' 기획
광주 도시정체성 마련 역할 기대

◇신일섭=지난 24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명량해전 당시 전사한 일본 수군 유해가 안장된 진도군 왜덕산 위령제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무등고 '진도 왜덕산' <9월 21일자 23면>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나온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는 소재를 글로 풀어쓰며 상생의 얘기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유행 도시들은 종세와 근대를 거치며 식민지 개척, 산업혁명 등을 통한 다양한 도시 유산들을 만들어냈다. 역사가 짧은 미국 역시 도시 미화 운동을 통해 대규모 공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경쟁력을 높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속 계획없는 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시멘트로 범벅된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광주의 정체성을 잃었다. 광주일보 기획시리즈 '행복해지려면 건축과 도시를 바꿔라'의 <9월 28일자 22면> '도시 정체성 담은 구도심 사라진다면 광주도 없다' 기사는 광주가 정체성을 가진 도시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기획시리즈는 광주의 도시 정체성 마련을 위한 대안 역할을 하고 있다.

/정리=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



코로나가 바꾼 문화·총장로 상권
시대적 흐름·트렌드·세태 포착

◇최선희=지난 여름 발생한 조유나양 일가족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 비극적인 일면을 보여줬다. '자녀를 동반한 극단적 선택은 살인이다' <7월 1일자 6면> 기사를 통해 부모라든 자식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내용을 담아 무책임한 어른 탓에 아이까지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을 따끔하게 짚었다.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타 매체들과 별개로 광주주요는 냉정한 시각으로 정확한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

◇이철갑= '예술작품 아닙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 녹슨 철근' <7월 6일자 1면>은 사진을 통해 광주의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철근 방치로 인한 안전 우려를 잘 표현했다. '광주3순환도로 완공은 언제...' <7월 25일자 1면> 사진은 나주와 장성, 담양과 화순을 잇는 광주3순환고속도로가 지난 1992년부터 전국간선도로망계획에 반영됐는데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드린 항공 사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